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Value of Children's Library

강 미 희(Mi-Hee Kang)**

<목 차>

| | |
|----------------------|---------------------|
| I. 서론 | 1. 연구문제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대상 |
| 2. 선행연구 | 3. 조사도구 |
| II. 어린이도서관의 특성과 평가방법 | IV. 연구결과 |
| 1. 어린이도서관의 공공재적 특성 | 1. 기초자료 분석 |
|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검토와 적용 | 2. 경제적 가치 추정과 영향 요인 |
| III. 연구방법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중 부모를 대상으로 총 61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당 월 이용료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의사금액(WTP)은 1인당 월 평균 9,243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수, 성별, 나이,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별 영향력은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단위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이용빈도(1.140), 만족도(1.335), 자녀수(1.417), 나이(1.124), 소득(2.426) 등으로 지불의사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0.364만큼 지불의사확률이 낮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실제 이용자를 직접 면담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조건부가치측정법, 공공재, 경제적 가치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check economic value of and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library. To this end, data on a total of 614 questionnaires to which parents among users of 6 children's libraries responded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analysis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fter selecting library fee per person as payment vehicle were as follows. First,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o be a monthly average of KRW 9,243 per person. Second, it was shown that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pay included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satisfaction, the number of children per family, gender, age, and income and so on. Third, with regard to influence according to each factor, an additional unit in all the rest of factors except gender increased probability of willingness to pay such as the frequency of utilization(1.140), satisfaction(1.335), the number of children per family(1.417), age(1.124), income(2.426).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gender, probability of willingness to pay was lower in female by 0.364 than in mal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interview is held with actual user and specific amount of money is presented regarding the economic value of children's library, which has been little known until now.

Keywords: Children's librar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Public goods, Economic valu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555)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hkang08@hanmail.net)

•논문접수: 2016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2월 26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05-328, 2016. [http://dx.doi.org/10.16981/kliiss.47.201606.30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인간과 사회발전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현실적이고 정확한 금전적 가치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기관이라는 전통적 생각을 뛰어 넘어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응집이라는 경제적 기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Arts Council England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대로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 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중반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들어 가치 측정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검토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중 후반 들어서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제 측정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고영만, 심원식 2011). 최근 들어서는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경제성에서 나아가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방법론의 세부적 특징에 따른 가치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연구방향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도서관은 총 88개로, 전체 공공도서관 930개의 약 9.5%에 달하는 수치로 성장하였다.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고 1993년 양평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불과 2개에 지나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이 최근 약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관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영향과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민·관 협력프로그램인 도서관 확충 운동의 결실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10%에 가까운 비중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뒷받침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린이도서관의 존립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을 삭감하는 최근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

부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만한 이해 기반 자체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도서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예산이 증가하여도 개관 도서관 수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각 도서관별 평균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총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1관 당 평균예산은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 4억 3천, 2013년 4억 8백, 2014년 3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한국도서관연감 2015). 단순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도 2013년 5.1%, 2014년 9.3%의 예산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도서관 전체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금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자금 확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기여에 대한 견실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Arts Council England 2014).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경제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려 연간 1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비판이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원식 2010). 즉 바람직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이 발생시키고 있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성 추정의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통해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된 그와 같은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어떤 배경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불의사금액(WTP)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제시한 이와 같은 연구는 정부, 어린이도서관, 학계 등 여러 분야의 관련자들에게 어린이도서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정책수립 및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사실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될 여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의 이론적 연구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이 연구가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적용방법에 따라 혹은 동일방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설문조건에 따라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화의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국가 및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창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1998년의 Saint Louis Public Library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Waldfoegel and Washbrook 2010). 세인트루이스 지역 내 도서관들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이 연구는 일반 이용자(322), 교사(75), 기업 이용자(25명) 등 총 422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WTP)과 수용의사금액(WTA)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교사와 기업 이용자들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평가하였다. 즉 현 시선호와 진술선호 등의 방법을 통해 적용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증액된 세금을 낼 지불의사금액(WTP)은 1천 5백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도서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수용의사금액(WTA)은 1억 3천 6백만 달러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반면에 교사와 기업 이용자들이 보낸 시간의 기회비용을 통해 측정한 소비자잉여 가치는 1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할 경우 지불의사금액(WTP)과 수용의사금액(WTA)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며, 나아가 조건부가치 측정법과 소비자잉여로 조사한 결과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동일한 재화일지라도 적용방법에 따라 평가결과는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한 이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성 측정을 위한 연구설계시 연구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Svanhild Aab ϕ (2005a)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르웨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이 연구는 250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실시한 결과 투자비용 1크로네 당 4크로네의 편익이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먼저 거리는 지불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으며, 도서관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지불의사가 더 높으며,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시골지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가 더 높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기에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후의 몇몇 연구에서도 검증되고 있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도서관 경험은 도서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 본 연구의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38편의 비용편익 연구에 대한 Svanhild Aab ϕ (2009)의 메타분석 역시 주목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의 연구 38편을 메타분석한 이 연구는 도서관이 존재하는 지역적 규모에 따라 평균투자수익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국가 수준의 편익 추정 연구의 평균투자수익율은 3.5:1로 나타난 반면 주 수준에서는 5:1로, 카운티 수준에서는 4.6:1, 개인 수준에서는 4.2:1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이 존재한 지역적 기반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 기반하여 국내에서도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는데, 그중 정혜경, 정은주(2008)의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과대추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수행된 점이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설문문항에 대해 애매모호한 상태의 응답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항목이나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긍정편의 및 응답거부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연구는 DM(Dissonance Minimizing)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과대추정에 대한 우려는 여러 연구(Champ et al. 1997; Viscusi et al. 1991)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실제 가치의 3~4배로 추정되어 신뢰하기 어렵다(Viscusi et al. 1991)는 주장을 고려하면 대안을 제시한 이와 같은 연구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방법, 재화의 규정,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심원식(2010)의 연구도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측정대상 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시간 대비 화폐가치에 따른 결과의 가변성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측정의 유용성, 특정기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평가에서 측정대상인 재화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재화의 규정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서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방법론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측정방법의 채택에 대한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용가치만을 추정한 본 연구의 한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방법과 재화의 성격에 따른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확인한 고영만, 표순희, 심원식(2012)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도 측정방식은 물론 측정대상인 서비스 범위를 세분화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A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전자학술정보 서비스, 참고서비스, 대출, 이용자 교육, 공간 등 5개 서비스에 대해 추정하고, B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시간가치, 대체서비스가치,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전자학술정보 서비스라는 한 가지 재화에 대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방법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재화에 따라서도 가치가 다르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정목적, 측정대상, 측정방법,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구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이 연구는 연구설계시 반드시 참조할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표순희, 고영만, 심원식(2011)의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중 특히 이용가치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2개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1,220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성별, 수입, 연령 등의 특성과 이용빈도, 체류시간 등의 이용행태, 그리고 정보, 시설,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만족도, 주민교류의 장, 경제적 도움 정도,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초창기 연구보다는 분화된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심화연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불수단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 표순희(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기부금, 세금, 이용요금 순으로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기관에 대해 조건부가치측정을 적용할 경우 지불수단을 무엇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측정됨을 확인한 것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상황, 질문유형, 지불수단 등 다양한 세부적 설계에 따라 측정값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어린이도서관의 특성과 평가방법

1. 어린이도서관의 공공재적 특성

공공도서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적인 상품과는 달리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현실적인 가치를 알 수 없다. 즉 공공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모임의 장소로서 고립을 해소하고, 직원과 이용자 또는 지역 기관들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사회적 통합과 책임을 수행하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재화이다(Svendsen 2013). 즉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생산 활동 모두가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재인 것

이다. 그러나 무료 또는 최소의 비용만으로 운영되는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특성은 경제적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은 생산품 대부분이 비시장 상품으로 현실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제성 측정법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Arts Council England 2014).

어린이도서관 역시 매일 이용자들에게 책을 대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만남과 독서를 촉진하는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대부분은 무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된 사적재와는 달리 가치추정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재, 문화재 등과 같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어 타당성이 인정된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어린이도서관이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공공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순수공공재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공공재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도서관의 예외적 특성을 논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의 결과 자체가 부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성은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에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로서의 기본조건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때문에 추정결과의 타당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점을 미리 언급하여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어하고자 한다.

공공재란 사적재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개의 주요 특성으로 설명된다(박진근 2002). 여기서 의미하는 비경합성은 특정 재화를 한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재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배제성은 특정 재화의 소비에 대해 한 개인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특정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이명훈, 이영환, 박성훈 2008).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이 공공재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즉 무한한 이용자가 어린이도서관을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전혀 경합성을 느끼지 못하며, 어린이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의 서비스가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특성 하에서 제공되고 있다.

먼저 경합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이용자 중 한사람이 특정 자료를 대출할 경우 그 자료에 대한 다른 누군가의 대출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어린이도서관의 중요한 자원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장자료에 대한 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간 역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경합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합성에 대한 현실적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순수공공재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비배제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재로서의 기본 전제인 비배제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 여부를 규정하는 기본 전제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순수공공재는 흔치 않다(이재은 2011)는 점과 실제로 도로,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는 이용에 혼잡현상을 초래하는 비순수공공재(한국지방자치학회 2010)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공공재로서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한다. 즉 엄밀한 의미를 적용할 경우 공공재로서의 조건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러한 현실적 상황이 어린이도서관의 공공재적 본질을 부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검토와 적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을 통한 가치 측정이 어려운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특별한 방법론을 차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공공재에 대해 가상의 시장이 설계될 수 있는 점, 통계적으로 용이한 점,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한 점 등을 참조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공공재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 중 하나로,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헤도닉가격모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박재석, 문성철, 유승훈 2011). 주로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시간가치측정법, 여행비용접근법, 만족가격접근법, 소비자잉여 등은 이용자 행위와 관련된 엄밀한 가정이나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절차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산출결과의 타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영만, 심원식 2011). 이러한 방법과는 달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집단재의 소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illingness-to - Pay, WTP)이나 보상(Willingness-to Accept,

WTA)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을 위해 부담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직접 도출함으로써, 지불의사금액을 통해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최근 들어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 측정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최연태, 정광호 2007). 그러나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한 현시선호가 아니라, 가상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불하겠다고 표시한 진술된 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대추정 및 과소추정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권오상 2000). 뿐만 아니라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의 시나리오 설정, 지불수단(기부금, 세금, 이용료 등), 지불빈도(1회, 월 단위, 연간 등), 참고정보(다른 공공재 제공 비용, 비교 국가에서의 결과 등) 제공 여부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심원식 2010). 따라서 가상의 설문 조사가 과연 응답자의 진실한 의사를 정확히 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설문조사 방법을 수행하면 매우 유효하고 신빙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김동건 2008).

이와 같이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과 논쟁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이를 통한 비시장 재화의 가치 평가 연구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물관과 같은 공공재의 지불의사금액 평가방법으로 적용대상이 확장되고 있다(홍종호, 엄영숙 2010).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연구 문제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러한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어린이도서관의 월 평균 이용료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이용자에게 직접 물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은 월 얼마인가? 라는 물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관련하여 언급할 부분은 지불의사금액은 재화의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세부적인 여러 단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은 대규모의 국가도서관, 일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부분이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며, 또한 방문 이용자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를 여러 부분으로 세분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전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선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조금주(2011)의 연구는 자료(5,392원), 공간(7,758원), 프로그램(14,769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한 후 이를 총합하여 S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월 평균 총 27,739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는 앞서 밝혔듯이 자료이용과 프로그램 참여 역시 공간을 기반으로 한 방문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미 공간이용에 대한 무의식적 가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과대추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Champ et al. 1997; Viscusi et al. 1991)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실제 가치 보다 무려 3~4배의 가치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하나의 재화로 규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러한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측정결과로 나타난 최종 지불의사금액, 즉 경제적 가치는 무엇에 기인하여 도출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조명되었듯이 도서관과의 거리, 이용자의 거주지, 어린 시절의 이용경험,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구분 등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에 차이가 있으며(Svanhild Aabø 2005),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 등의 요인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에 차이가 있음(표순희 2012)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자녀인원, 성별, 소득, 이용빈도, 만족도 등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합한 총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용가치에 한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가치를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방법론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심원식 2010). 또한 이론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도서관의 총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며, 도서관으로부터 사회가 얻는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모든 이점들에 대한 포괄적인 비이용가치를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는 극소수의 연구만이 비이용가치를 측정하고 있다(Arts Council England 2014).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한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가치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금산기적의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운남어린이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어린이도서관 등 6개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중 부모로 한정하였다. 표집기관은 기적의도서관과 일반 어린이도서관을 각각 3개씩 선정하여 두 기관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응답자를 부모로 한정한 이유는 어린이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상상황, 지불수단, 지불유도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폐 단위에 대한 인식이 어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정혜경, 정은주(2008)의 연구에서도 유치부나 초등학생은 재화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성인만을 분석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중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보조 면접원이 직접 면담을 통해 총 61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설문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면접시 가상상황, 지불수단, 단계별 응답금액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면담에 신중을 기한 결과 수집된 614부의 설문지는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6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2개월이며, 평일보다 주말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3. 조사도구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핵심은 조사도구인 설문지 작성이다. 설문작성에서 가상상황, 지불수단, 지불유도방식 등은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가상상황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 결과로 얻은 “예” 또는 “아니오”로 구성된 응답 자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상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설문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할 경우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작성시 평가 대상인 어린이도서관의 특성, 가상적인 정책, 프로그램, 응답자가 직면한 선택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설문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내용을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표 1>과 같이 지방정부 및 국가 재원으로 운영된 어린이도서관이 재정 악화로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그동안 제공 받았던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책을 빌리

거나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폐관 위기에 처한 어린이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연 납부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표 1〉 가상상황 설계

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방정부 및 국가 재원을 통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정이 어려워지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폐관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처럼 재정이 악화되어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제공 받았던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도 없고,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책을 빌려야 하거나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으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도서관이 폐관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지면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이용료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이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중요도까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실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에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나. 지불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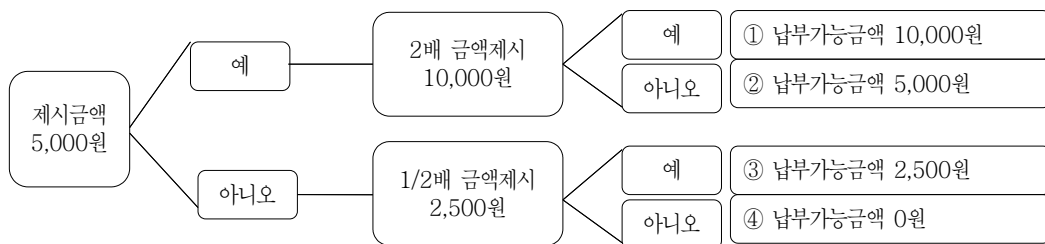
지불수단은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어떤 수단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와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의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지불수단에 따라 동일 재화의 지불의사금액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상시장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응답자가 밝히려는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이 되도록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가상상황을 좀 더 현실화 시킨다는 점, 또 의향과 행동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불수단을 결정할 때는 평가하려는 재화와 관련된 정도,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여러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있으며 사실과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은 이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지 않아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

금은 조세 저항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표순희(2012)에 따르면 기부금 월 14,542원, 세금 월 8,577원, 1회 이용료 1,612원 순으로 지불수단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1인당 월 평균 5회 방문으로 조사된 된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이용료는 월 8,060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부금, 세금, 이용료 등의 세 가지 지불수단 중 기부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낮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평가하려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나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다. 지불유도방식

지불유도방법은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자의 응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출발점 편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연구도 <그림 1>과 같이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초기제시 금액은 차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개방형의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금주(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S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27,739원이나 표순희(2012)의 연구에서 밝혀진 공공도서관의 월 이용료 8,060원을 이 연구에서 차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림 1> 지불의사금액 추정 방식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운남어린이도서관, 생태학습어린이도서관, 푸른길도서관 등 광주광역시의 3개 어린이도서관에서 2014년 6월 7~8, 14~15일까지 4일간 주말 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이 중 푸른길도서관은 조사 당시 개관 첫해인 신규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전조사는 첫 번째 문항에서 주 1회 이하인 경우 설문을 중단하고 최소 주당 1회 이상 이용자에 한해서 질문함으로써 최대한 경험에 의한 실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

다. 또한 지불의사금액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도출하기 위해 100원 단위까지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심리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400원이나 4,000원, 40,000원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방형 질문으로 추정된 월평균 이용료는 단순계산에 의해 4,950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초기제시 금액을 월 5,000원으로 제시하고, 심원식(2010)의 연구와 표순희, 정동열(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지불의사금액은 ①(예-예) 10,000원, ②(예-아니오) 5,000원, ③(아니오-예) 2,500원, ④(아니오-아니오) 0원이라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기초자료 분석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응답자 현황 및 특성

| | | 구분 | |
|-----|--------------|-----|-------|
| | | 빈도 | % |
| 성별 | 남성 | 180 | 29.3 |
| | 여성 | 434 | 70.7 |
| 연령 | 20대 | 128 | 20.8 |
| | 30대 | 215 | 35.0 |
| | 40대 | 168 | 27.4 |
| | 50대 | 70 | 11.4 |
| | 60대 이상 | 33 | 5.4 |
| 소득 | 100만원 미만 | 79 | 12.9 |
| | 100~200만원 미만 | 137 | 22.3 |
| | 200~300만원 미만 | 185 | 30.1 |
| | 300~400만원 미만 | 111 | 18.1 |
| | 400~500만원 미만 | 71 | 11.6 |
| | 500만원 이상 | 31 | 5.0 |
| 자녀수 | 1명 | 210 | 34.2 |
| | 2명 | 294 | 47.9 |
| | 3명 이상 | 110 | 17.9 |
| 합계 | | 614 | 100.0 |

총 614부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434명(70.7%)으로, 남성 180명(29.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28명(20.8%), 30대 215명(35.0%)으로, 20~30대의 비율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33.9%)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가계소득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분포가 322명(52.4%)으로,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1명 34.2%, 2명 47.9%, 3명 이상 17.9%로, 자녀가 2명인 응답자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용현황

이용현황은 이용빈도와 만족도로 조사하였다. 이용빈도에서는 주로 월 3~4회(29.3%)와 5~6회(37.5%) 비율이 높은 반면 7~8회(5%), 9~10회(6.8%), 11회 이상(6.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절반 이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만족 64명(10.4%), 만족 147명(23.9%), 보통 341명(55.5%), 불만족 35명(5.7%), 매우 불만족 27명(4.4%)으로, 약 90%의 응답자는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이용 현황

| | | 구분 | |
|------|--------|-----|-------|
| | | N | % |
| 이용빈도 | 1~2회 | 92 | 15.0 |
| | 3~4회 | 180 | 29.3 |
| | 5~6회 | 230 | 37.5 |
| | 7~8회 | 31 | 5.0 |
| | 9~10회 | 42 | 6.8 |
| | 11회 이상 | 39 | 6.4 |
|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27 | 4.4 |
| | 불만족 | 35 | 5.7 |
| | 보통 | 341 | 55.5 |
| | 만족 | 147 | 23.9 |
| | 매우 만족 | 64 | 10.4 |
| 합계 | | 614 | 100.0 |

다. 지불의사 확률

응답자 614명 중 464명(75.6%)은 설문에서 제시된 가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도서관의 이용료를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24.4%는 이용료를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불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109명(72.7%), 이용료 자체가 싫다 22명(14.7%), 경제적 여유가 없다 19명(12.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불의사를 거부한 응답자의 150명 중 109명인 72.7%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이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이용료 납부 의사 여부

| | 응답유형 | 빈도(%) |
|--------------|-----------------------|-----------|
| 납부의향 | 예 | 464(75.6) |
| | 아니오 | 150(24.4) |
| 지불의사 반대이유 | 이용료를 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 109(72.7) |
| | 이용료 자체가 싫다 | 22(14.7) |
| | 경제적 여유가 없다 | 19(12.7) |
| 합계 | | 614(100) |

2. 경제적 가치 추정과 영향 요인

가. 경제적 가치 추정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로 규정했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즉 초기제시 금액은 5,000원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초기제시 금액의 2배인 10,000원을 제시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초기제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500원을 제시하였던 설문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불의사는 0원의 경우 100%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00원의 경우 85.6%, 5,000원의 경우 65.3%, 10,000원의 경우 40.3%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금액이 낮을수록 “예”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이용료 지불의사 확률

| 제시금액(원) | 지불의사 | |
|---------|-------------|-----------|
| | 예 | 아니오 |
| | 빈도(%) | 빈도(%) |
| 0 | 464(100) | 0(0) |
| 2,500 | 397(85.6) | 67(14.4) |
| 5,000 | 303(65.3) | 161(34.7) |
| 10,000 | 187(40.3) | 277(59.7) |
| 합계 | 1,351(72.8) | 505(27.2) |

이상의 지불의사 확률에 따라 614명 중 지불의사가 있는 이용자 464명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는 이중 양분형으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응답별 추가 질문을 통해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즉 최초제시 금액 5,000원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고, 그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원에 대해서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 즉 ①10,000원을 낼 수 있으면 그럼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금액은 35,000원이었다. 반면 최초제시 금액 5,000원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하고, 그의 1/2배에 해당하는 2,500원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즉 ④2,500원을 낼 수 없으면 그럼 최소 얼마까지는 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료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은 0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해서도 양의 값으로 규정하여 추산한 것으로, 지불의사 확률에 따른 최대금액은 35,000원, 최소금액은 1,000원, 절단평균 금액은 9,130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이용료의 최대 및 최소 금액 추정결과

|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최대가능금액 | 464 | 1,000 | 35,000 | 9,130.39 | 7,436.900 |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는 Hanemann(1984)이 제시한 3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WTP 평균값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를 무한대까지 확장하여 확률 누적 면적을 구한 값이며, WTP 중앙값은 로짓분포의 오차항의 평균과 중위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값이다. 절단평균 WTP는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를 극소값에서 극대값의 범위를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WTP 평균, WTP 중앙값, 절단평균 WTP를 분석한 결과 1인당 WTP 평균값은 14,436원, WTP 중앙값은 14,262원, 그리고 WTP 절단평균값은 9,243원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절단된 평균값을 추정값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도서관의 1인당 월 평균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9,243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순희(2012)의 공공도서관 월 이용료 8,060원과는 상당히 근접한 결과인 반면 조금주(2010)의 S어린이도서관 월 평균 이용료 27,739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27,739원은 공간에 대한 중첩된 가치가 작용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시골 지역 거주자들이 도시 거주자들 보다 지불의사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Svanhild Aabø 2005)를 참조 할 경우 이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7〉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 | 추정계수(A) | 평균값(B) | 곱(A*B) |
|------|---------|--------|--------|
| 지불금액 | -.000 | | |
| 이용빈도 | .131 | 2.83 | 0.37 |
| 만족도 | .289 | 3.34 | 0.97 |

| | | | |
|----------|--------|------------|-------|
| 자녀인원 | .349 | 1.86 | 0.65 |
| 성별 | -1.011 | 1.67 | -1.69 |
| 나이 | .117 | 3.42 | 0.40 |
| 소득 | .886 | 3.30 | 2.82 |
| 상수항 | -.061 | 3.19 | -0.06 |
| 합계 | | | 3.22 |
| b | | 0.000 | |
| WTP 평균 | | 14,436.756 | |
| WTP 중앙값 | | 14,262.685 | |
| WTP 절단평균 | | 9,243.747 | |

나. 경제적 가치의 영향 요인

앞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료에 대한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9,243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이 도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불의사금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추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에서 Hosmer와 Lemeshow의 카이제곱 통계량이 12.899, 유의확률이 0.115로,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에서 지불의사에 대하여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인원, 성별, 나이, 소득 모두 $p < 0.05$ 로 유의하였으며, 이중 이용빈도($B=0.131$), 만족도 ($B=0.289$), 자녀인원($B=0.349$), 나이($B=0.117$), 소득($B=0.886$) 등은 양(+)의 부호로, 해당 변수들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ext{Exp}(B)$ 가 1.140인 이용빈도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지불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이 1.140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월 1~2회 이용빈도 보다는 월 3~4회의 이용빈도일 경우 지불의사비율이 1.140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text{Exp}(B)$ 가 1.335인 만족도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지불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이 1.335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text{Exp}(B)$ 가 1.417인 자녀인원은 자녀가 한명 증가할수록 1.417만큼 지불의사가 높아지며, 나이는 $\text{Exp}(B)$ 가 1.124로 연령대가 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1.124만큼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20대 보다는 30대가 30대 보다는 40대의 지불의사 확률이 1.124만큼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은 $\text{Exp}(B)$ 가 2.426으로 가계소득이 한 단계(백만원) 높아질수록 2.426만큼 지불의사가 없을 확률에 비해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성별($B=-1.011$)은 음의 부호이고, $\text{Exp}(B)$ 가 0.364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지불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이 0.364배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으며, 현실적으로 여성의 이용빈도가 높은 점과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지불의사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

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지불의사 확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만족도와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는 이용자의 지불의사가 비이용자보다 더 높다는 Svanhild Aabø (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녀인원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점은 혹시 1인당 이용료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지불의사 영향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 | B | S.E. | Wals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지불금액 | -.000 | .000 | 258.862 | 1 | .000 | 1.000 |
| 이용빈도 | .131 | .057 | 5.332 | 1 | .021 | 1.140 |
| 만족도 | .289 | .070 | 16.996 | 1 | .000 | 1.335 |
| 자녀인원 | .349 | .099 | 12.455 | 1 | .000 | 1.417 |
| 성별 | -1.011 | .168 | 36.284 | 1 | .000 | .364 |
| 나이 | .117 | .055 | 4.553 | 1 | .033 | 1.124 |
| 소득 | .886 | .061 | 208.767 | 1 | .000 | 2.426 |
| 상수항 | -.061 | .470 | .017 | 1 | .898 | .941 |
| 모형 요약 | -2 Log Likelihood: 1,755.080 Cox & Snell R2: 0.253 Nagelkerke R2: 0.389 | | | | | |
| Hosmer - Lemeshow 검정 | 카이제곱: 12.899 자유도: 8 유의확률: .115 | | | | | |

V. 결론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10%에 가까운 비중으로 성장한 어린이도서관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존립기반인 정부의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감시, 비판, 건전한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이 작동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료로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일련의

변화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기여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발생시키고 있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수치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6개의 어린이도서관을 표집기관으로 하여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 중 부모를 대상으로 614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은 개인당 월 평균 9,24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월평균 이용료로 추정된 것으로, 일부 연구와는 근접한 반면 일부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당 월 평균 9,243원이라는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된 근거에 대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인원, 성별, 연령, 소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인원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인 경우,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월 1~2회보다는 3~4회일 경우) 지불의사 확률이 1.140만큼 증가하였으며, 만족도가 한 단위 높을수록 1.335만큼, 자녀가 한명씩 많아질수록 1.417만큼, 연령대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20대보다는 30대일 경우) 1.124만큼, 가계소득이 백만원씩 많아질수록 2.426만큼의 지불의사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불의사 확률이 0.364배로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 및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점은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인원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이용료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지불의사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불의사 확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6개 어린이도서관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614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용가치라는 점과 면접을 통한 직접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될 여러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정부, 어린이도서관, 학계 등 여러 분야에 어린이도서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결과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와도 직결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만, 심원식. 2011. 도서관 경제성 평가 연구의 비평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7-52.
- 고영만, 표순희, 심원식. 2012. 대학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61-76.
- 권오상. 2005. 가산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평가. 『경제학연구』, 48(3): 177-196.
- 김동건. 2008.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 김재홍. 2006.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서울: 집문당.
- 박재석, 문성철, 유승훈. 20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진근. 2002. 『경제학대사전』. 서울: 보성각.
- 심원식. 2010. 도서관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이론적 실제적 검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31-247.
- 이명훈, 이영환, 박성훈. 2008. 외부재 및 공공재 定義의 調和.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2): 73-94.
- 이재은. 2011.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한국위기관리학논집』, 7(6): 1-16.
- 정혜경, 정은주.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5(3): 377-392.
- 조금주. 2011. 어린이도서관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51-72.
- 최연태, 정광호. 2007. 공공재 가치평가에 있어서 CVM 편의 연구 - 문화적 편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2): 1-26.
- 표순희.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가치의 비교 연구 - 지불수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2): 173-191.
- 표순희, 고영만, 심원식. 2011. 공공도서관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323-341.
- 표순희, 정동열. 2008. 공공도서관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209-234.
- 한국도서관협회. 2015.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지방자치사전』. 서울: 보성각.
- 홍중호, 엄영숙. 2010. 설문기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수요 추정 : 주요 쟁점과 환경위성 탑재사업 가치평가에의 응용. 『한국경제의 분석』, 17(1): 1-72.
- Aab ϕ , Svanhild. 2005(a). "Are Public Libraries Worth Their Price?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Norwegian Publ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106(11/12): 487-495.
- Aab ϕ , Svanhild. 2009. "Libraries and Return on Investment(ROD): A Meta-Analysis." *New Library World*, 110(7/8): 311-324.
- Arts Council England. 2014. *Evidence Review of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Libraries*. Manchester: Arts Council England.
- Champ, P.A. et al. 1997. "Using Donation Mechanisms to Value Nonuse Benefits from Public Good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3(2): 151-162.
- Hanemann, W.M. 1991.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How Much Can They Differ?" *American Economic Review*, 81: 635-647.
- Johnston, R.J., S. K. Swallow & T. F. Weaver, 1999.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and Resource Tradeoffs with Different Payment Mechanism: An Evaluation of a Funding Guarantee for Watershed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8: 97-120.
- St. Louis Public Libraries. 1999. *Using Your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Benefits Valuation Study*, <www.slpl.lib.mo.us/using/aluatiointoc.htm> [cited 2016. 5. 11].
- Svendsen, G.L.H., 2013. "Public Libraries as Breeding Ground for Social Capital in Rural Denmark." *European Society for Rural Sociology*, 53(1): 52-73.
- Viscusi, W.K. et al. 1991. "Pricing Environmental Health Risks: Survey Assessments of Risk - Risk and Risk-Dollar Trade-Offs for Chronic Bronchiti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1(1): 32-51.
- Whitehead, J.C., S.S. Finney. 2003. "Willingness to pay for submerged maritime cultural resourc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 231-240.
- Waldfoegel, J., E.V. Washbrook, 2010. "Low Income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UK: A Report for the Sutton Trust. London: Sutton Trust." <http://research-information.bristol.ac.uk/files/9907648/Waldfoegel_Washbrook_Sutton_Trust.pdf> [cited 2016. 5. 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Keum-Ju. 2011. "A Study on the Value of S Children's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51-72.
- Choi, Yeon-Tae and Kwangho Jung. 2007. "A Preliminary Analysis on 'Cultural Bias' of CVM in the Evaluat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7(2): 1-26.
- Chung, Hye-Kyung and Eun-Joo Jung. 2008. "A Study on Economic Analysis of Culture Program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377-392.
- Hong, Jong-Ho and Young Sook Eom. 2004. "Estimating Demand for Public Goods Using Survey Methods: Issues and Application to the Valuation of Environmental Satellite Project." *Analysis of Korean Economy*, 17(1): 1-72.
- Kim, Dong-Gun. 2008. *Cost-Benefit Analysis*. Seoul: Pybook.
- Kim, Jae-Hong. 2006.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Social Cos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eoul: Jipmoondang.
- Ko, Young-Man, Soon-Hee Pyo and Wonsik Shim. 2012. "A Pilot Study of the Economic Valuation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61-76.
- Ko, Young-Man and Wonsik Shim. 2011.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the Economic Valuation of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7-52.
-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010. *Dictionary of Local Government*. Seoul: Nurimedia.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5.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on, Oh-Sang. 2000. "Economic Assessment of Natural Ecosystem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Korean Economic Review*, 48(3), 177-196.
- Lee, Jae-Eun. 2011. "Enhanc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mpetency and Its Nature As a Public Good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7(6): 1-16.

- Lee, Myunghoon, Young-Hwan Lee and Sung-Hoon Park, 2008. "Reconciling the Definitions of Externality and Public Good."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Finance*, 2008(2): 73-94.
- Park, Jae-Seok, Sung-Chul Moon and Seung-Hoon Yoo. 2011. *Estimating the Social Value of Post Office Network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cused on the Public Value*. Seoul: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Park, Jin-Kuen. 2002. *Dictionary of Economics*. Seoul: Nurimedia.
- Pyo, Soon-Hee. 2012. "The Comparative Study of Public Library Valuation Using CVM: Case of the Payment Veh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2): 173-191.
- Pyo, Soon-Hee. Young-Man Ko, Wonsik Shim. 2011.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Public Library's Use Valu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323-341.
- Pyo, Soon-Hee. Dong-Youl Jeong. 2008. "A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Economic Use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209-234.
- Shim, Wonsik. 2010. "Rethink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Economic 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31-247.